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성경말씀: 빌1:19-24

지난 주 욥기 강해, 지혜란 무엇이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하는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Prize, Pray, Pursue,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
저녁에 청년들과 담화, 인생에 대한 조언 요청, 이번 주부터 다른 설교, 생각하지 않음
이번 주, 세상과 육신과 일에 매여 나 스스로 생각해서 설교할 수 없는 상황, 다시 한 번 파이퍼 설교
< > 2000년 5월 20일, 뎀피스, 테네시, 4만 명의 대학생들 앞에서 54세의 파이퍼 설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설교 중 하나, 나보다 훨씬 나은 분이므로 그의 설교를 중심으로 설교하려 함

사망자 통계

우리나라 연간 출생 40만 명, 사망자 수 역시 40만 명

<http://www.worldometers.info/kr/>, 연간 5800만 출생, 2400만 사망, 하루 66,000명 사망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다, 무고하게 죽는 사람도 많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5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끼는가?(눅13:1-5)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음, 왜 무고한 사람들이 죽느냐?(눅13:1-5)

물론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다(롬12:15). 그런데 며칠 지나서 복받치는 감정이 가라앉으면
여전히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인생은 무엇인가?” 이것은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사망은 실존 문제, 예수님은 항상 인생을 하나님, 죄, 심판, 구원 문제로 보신다.

지금 누가 예수님에게 가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느냐고 물으면 너희도 회개하지 ○냥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소유인가

인생=삶=생명, Life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서 나온다. 우리의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 목적이 결정되었듯이
재난을 통해 10명의 자녀(7, 3)들이 하루에 죽음, 욥의 반응(욥1:20-21, 12:10)

한나, 사무엘 출생 후 감사 기도(삼상2:6), 주께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 무덤에 내려가게도 올라오게도
하나님 자신의 말씀(신32:39-40),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살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약4:13-16

우리의 생명,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속에서 언제라도 가져가실 수 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이 자리에 여러 연령층, 아이로부터 노인, 나는 인생의 3분의 2가 타 버린 초

나이가 어리다고 오래 산 것이라고 추측하지 말라. 언제라도 데려가실 수 있다.

그런데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모두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해야 한다.

예수님의 충고: 인생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한 것에 있지 않다(눅12:15). 눅12:16-21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허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20)라는 평을 받을 것이다.


인생은 물건을 모아 쌓아둔 것이 아니다. 오늘 죽으면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는가?

병상에 누워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많은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수님의 또 다른 충고(마16:24-26) 생명은 온 세상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이퍼 목사의 소년 시절 이야기, 벽에 걸린 액자(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Only
what is done for Christ will last).



Only one life,
'T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파이퍼가 설교할 때 54세, 지금 나도 58세, 인생의 많은 부분이 이미 타버렸다. 급속도로. 그래서 나와 내 아내는 점점 죽을 날을 코앞에 두고 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인생은 매우 짧다. 부서지기 쉽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이다. 히9:22

우리나라 지난 7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을 극복하고 전례 없는 풍요를 누림
내 나이의 많은 분들의 생각: 이제까지 충분이 일했으니 이제부터는 손 놓고 편안히 살아야겠다.
미국 사람들의 경우 남부의 플로리다 바닷가에 가서 별장을 얻은 뒤 조개껍질을 모아야겠다.
골프, 크루즈 유람선, 낚시, 브릿지 게임 등,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를 오직 이것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 이러다가 십자가에 두 손이 박히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부끄럽고 미안하지 않은가?
그래서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얼굴을 부싯돌처럼 단단히 하고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삶을 틀어야 한다. 그래서 숨이 붙어 있는 한, 특히 은퇴한 뒤에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써야겠다고 작정해야 한다. 젊을 때도 주님을 위해, 은퇴 후도 주님을 위해, 사실 가장 좋은 때
허비하지 않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파이퍼의 대답, 나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빌1:20), magnify Him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를 보여 주는 삶, 인생의 목적 즉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어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세상에 보여 주는 것
우리의 소유, 건강은 모두 그것들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수단
그러므로 열심 공부해서 많이 벌고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돈, 우리가 돈을 사용해서 돈이 보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배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삶에서 그리스도를 높여야 한다(빌1:20).
그리스도인의 인생철학(빌1:20-21)

바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한하심, 위대하심을 보게 하는 것, 우리 삶의 목표, 교회의 목표
그러므로 인생에서 무슨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하는 질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인생의 두 파트: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빌3:7-8),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인생의 모든 것을 뚱으로, 손해로 여김
재산, 집, 자동차, 음식, 휴대폰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삶의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물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야 한다.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1:21), 죽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 이유: 죽음이 이득이다(21). 이유(23).

그래서 죽음을 우리의 이득이요 유익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든다.

즉 죽을 때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좋았습니다.”라고 하면 죽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든다.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살았을 때 전력을 다해 주님을 존귀하게 하면 가능하다.

1. 삶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수단
2.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김을 보여 줄 때 그분의 가치가 드러난다.
- 3번은 대개 안 하려고 한다.
3. 이것을 보여 주려면 때로는 희생도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무어라 해도 내가 지킬 가치를 위해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고후12:9-12),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데도, 고생을 죽도록 하고서도(고후11:21-30)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 열정: 나의 연약함, 부족함, 추함,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존귀하심, 은혜를 높이는 것이 나도 오늘 이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결단하라

다른 사람들처럼 희생을 덜하고 더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가? 이것은 다름 아닌 인생 낭비이다.

많은 빵, 휴대폰, 큰 집, 자동차만을 위해 살면 인생 낭비, 위험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인가? 우리 사람에서 그분만을 높이기 원하는가?

내게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모든 것이 손실이요, 뚱에 지나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 세대가 재림 전의 마지막 시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희생하고 있는가?

우리의 부와 재물로 인해 복음이 전달된다. 교육된다. 서창 캠퍼스 건축 희생, 특별 헌금

주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라는 책망을 받지 말기 바란다.

주님께서 “네가 인생을 허비했구나!”라는 판정을 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강력하게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회계 보고하는 순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판정을 내리실 것이다. “너는 네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 너는 네 인생을 통해 살든지 죽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었다. 나도 너를 존귀하게 만들겠다.”

<https://www.desiringgod.org/messages/dont-waste-your-life--2>